

# 봉축등 밝히며 평화·화합 서원

<燈>

## 전북봉축위, 불교문화유산 사진전 - 여수지역 준비 한창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봉축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호남 지역에서도 본격적으로 봉축행사가 전개되고 있다.

전라북도봉축위원회는 4월 24일 전주 종합운동장 광장에서 봉축 기원등 점등 법회 봉행을 시작으로 봉축행사의 서막을 열었다. 이어 5월 1~14일 제1회 불교문화유산 사진전을 개최해 백제불교문화를 알리고 있다. 여수 지역 복지기관과 불교계 어린이집에서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천안함 희생 장병 기리는 점등 행사

전북 봉축위는 4월 24일 전주 종합운동장 광장에서 봉축 기원등 점등 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서는 46명의 천안함 희생 장병들과 한우호 준위, 금양호 선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위령제에 이어 점등, 축원, 탑돌이 순으로 진행했다.

전북 봉축위원장 원행 스님(금산사 주지)은 “부처님의 가르침 인류평화가 성취되고 7000만 민족의 대화합이 성취되기를 기원한다”며 “전쟁과 테러, 질병과 빈곤, 이념갈등, 노인문제와 청소년 문제가 지혜롭게 해결될 때까지 수행과 정진을 게을리 하지 말자”고 당부했다.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은 봉축사



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잡고, 행복과 안락, 평화와 자유를 위해 동체대비를 실천하는 불자가 되자”고 말했다.

이어 전북 봉축위원회는 5월 1일 전북교육문화회관 2층 전시실에서 제1회 전북 불교문화유산 사진전을 개최했다. 14일까지 계속되는 사진전에서는 전북 지역에 산재한 국보·보물급 불교문화유산 중 석탑·석등 43점을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회는 금산사, 선운사, 전주 영산회가 뜻을 모아 2009년 8월부터 9개월에 걸쳐 전북 지역 석탑·석등을 촬



(왼쪽)전북 봉축위가 4월 24일 전주 종합운동장 광장에 점등한 기원등. (위쪽)제1회 전북 불교문화유산 사진전 전시된 보물236호 익산 미륵사지 당간지주 사진.

영했다.

또, 부여박물관의 협조로 부여 정림사지 석탑과 미륵사지 석탑이 조성된 이후부터 고려시대까지 충남·전북 지역에 조성된 백제계 석탑 사진자료도 함께 전시해 백제계 석탑의 변천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원행 스님은 “미륵사지 석탑에서 출토된 부처님사리를 비롯한 많은 문화유산들은 여기저기 뿔뿔히 흩어져 있고, 완주고산 봉림사지 석탑과 석등들은 일제 때 강제로 옮겨져 군산 발산리 초등학교 교정에 그대로 내버려 둔 채로 인고의 세월을 견디고 있다”며 “불자들이 문화유산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호

해 찬란한 기풍이 면면히 흐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효석 전주영산회 회장 “9개월에 걸친 촬영 기간 동안 우리 삶을 되돌아보며 참된 의미를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며 “불교문화유산을 남긴 선조들의 간절한 마음이 전사를 통해서나마 우리를 마음에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시설서도 봉축 한창 전남 지역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중이다. 여수 보문복지회(대표 진옥) 산하 어른요양관 하안연꽃(원장 현빈)은 사찰에 가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시설 내에서 봉축행사를 개최

한다. 5월 21일 강당에서 진행되는 하안연꽃 발원봉축행사는 60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행사에는 육법공양 관육의식, 탑돌이 등의 의식과 함께 봉축한마당 잔치도 열린다.

동여수노인복지관(관장 김가현)과 여수시노인복지관(관장 심미경)은 5월 19~20일 노인위안잔치와 아기부처님 관불의식을 진행한다. 이에 앞서 7일 문수종합사회복지관(관장 홍문숙)은 어버이날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서는 연예인 문화공연과 무료점심식사, 노래자랑, 선물증정 등이 진행된다.

여수지역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행사와 교육도 마련했다. 여수 연꽃어린이집(원장 이경임)은 부처님오신날 당일 어린이들과 연등 만들기, 부처님오신날 재롱잔치 등을 준비하고 있다. 웅남생어린이집(원장 문복지)은 부처님오신날 이전 1주일을 봉축교육기간으로 정하고 정규 수업시간에 부처님 알기 행사를 진행한다. 교육은 스님이 들려주는 부처님 일대기, 연등 만들기, 관육의식, 육바라밀체험 등이다. 특히 육바라밀 체험은 육바라밀을 놀이와 게임을 통해 아이들이 친숙하게 배우고 실천하는 체험학습으로 눈길을 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아름다운 길 함께 걷기 김제 금산사 비롯한 모악산 일원서 개최



4월 24일 열린 종교명소 걷기에는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과 김완주 전북도지사 등 400여 명이 동참했다.

전북의 종교명소를 순례하는 걷기 행사가 김제 금산사를 중심으로 모악산 일원에서 개최됐다.

4월 24일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 안민순 원불교 중앙본부 교화원장, 김영수 신부, 양진규 목사를 비롯해 김완주 전북도지사 부부, 문화체육관광부 김동규 총무관, 전제수 총무제2 담당관, 김명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비서실장 등 400여 명이 동참했다.

걷기 행사는 김제 금산사를 출발해 금산교회, 수유성당을 거쳐 완주 안덕마을, 건강힐링센터에 이르는 19.8km 순례길을 걸으며 역사문화 탐방과 종교간 화합을 도모했다. 출발에 앞서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은 “지역의 문화·역사를 이해하고 종교·계층간 벽을 허무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순례길은 지난해 전라북도와 한국순례문화원이 4대 종교 성지가 있는 전주, 완주, 익산 종교 성지 순례길 180km에 김제 모악산 지역 20km를 추가해 총 200km에 이른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단청문화 우리 전통문화” 화순 쌍봉사 전통문화체험 행사



단청그리기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시민들이 채색에 집중하고 있다. 영제 스님(왼쪽)은 이날 참가자들에게 단청에 대한 설명과 함께 단청 그리기를 도왔다.

화순 쌍봉사가 진행하는 찾아가는 불교문화체험 프로그램이 광주지역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화순 쌍봉사주지 영제는 4월 24일 광주 무등산 입구 윤림제에서 템플스테이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전통문화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우리문화 체험프로그램은 쌍

봉사가 도심에서 멀리 위치해 신도들이 쉽게 찾아오지 못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불교문화를 광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전통문화체험으로 진행중인 단청 그리기는 평소 사찰에서 보기만 하던 단청을 직접 그리고 채색해 많은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불자 모두 찬불가로 ‘드레드레’

### 광주 광덕사 찬불가단 창립

스님과 재가불자가 음악으로 하나 되는 찬불가단이 창립됐다.

4월 23일 광주 광덕사는 찬불가 보급을 위한 연주단 ‘드레드레’ 찬불가단(단장 한장수)을 창립하고, 제1회 창립 공연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법신 스님(문빈정사 주지), 석두 스님(광재사 주지) 등 주변 사찰 스님들과 신도들이 참여한 가운데, 불자기수와 기타·드럼 연주자들이 멋진 공연을 선보였다. ‘여럿이 모여 즐겁게 놀아보자’는

뜻에서 지어진 ‘드레드레’ 찬불가단은 광덕사 주지 우진 스님을 주축으로 조직됐다. 평소 통기타 연주를 즐겨하던 우진 스님은 새로운 포교를 위해 찬불가를 만들고 알리는 일을 기획했다.

광덕사에서 수행하던 피아노 연주자 한장수 단장을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찬불가단을 결성하기 시작해 현재 만년사 정만 스님 등 16명의 회원이 동참했다. 찬불가단은 전문가와 비전문가



광주 광덕사 찬불가단 ‘드레드레’ 창립식이 4월 23일 개최됐다. 이날 창립공연에서 찬불가단이 첫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구분없이 즐겁게 불교를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불자기수 주권기·박소영씨, 한장수 단장 등 전문 음악가들이 참

여했다. 우진 스님과 정만 스님은 기타를 담당하게 된다. 우진 스님은 “찬불가를 비롯해 지역 불교음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한장수 단장은 “기존 찬불가를 비롯해 경쾌한 찬불가를 직접 작곡하고, 스님이 직접 가사를 써서 찬불가를 만들고, 만들면서 즐기는 포교를 할 계획”이라며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찬불가단 활동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가족과 이웃이 모두 동참해 즐거운 음성공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드레드레 찬불가단은 광덕사 내 학당에서 매주 2회 정기 연습을 진행한다. 만년사, 중심사, 문빈정사를 시작으로 매월 각 사찰에서 정기공연을 진행한다. 매달 4째 주 금요일 정기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

## 온가족이 함께 읽는 운주사의 어린이 불서



### 나라를 구한 스님, 사명대사

임진왜란의 참화로부터 국가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난 호국승병장 사명대사의 생애 중생들의 더 큰 회생을 막고자 스스로 지옥에 떨어질 각오로 목탁 대신 창과 칼을 든 의승병들과 사명대사는 그 시대 진정한 보살도서의 실천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명대사의 승려로서의 삶과 승병장으로서의 삶을 재미있고 유쾌하게 그려냈다. 정수일 글, 그림/사륙배판/컬러/184쪽/1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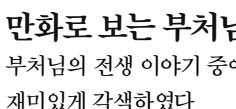
### 춤추는 스님, 원효대사

한국의 가장 위대한 고승이자 세계적 사상가인 원효스님의 생애! 불교의 본토인 인도와 중국에까지 그 이름을 떨쳐 ‘해동의 성자’로 불리는 위대한 사상가이자 세계적 저술가,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대자유인이자 은뚱으로 행동하는 실천가, 원효스님의 삶과 사상을 유쾌하게 그려냈다. 정수일 글, 그림/사륙배판/컬러/188쪽/9,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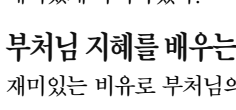
### 부처님이 들려주는 옛날이야기

47개의 이야기 보따리 속에 담긴 부처님의 지혜와 교훈! 고난을 건뎌내는 끈기와 인내,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난관을 돌파하는 지혜, 힘없는 이를 위한 한량없는 자비와 희생정신, 역경을 돌파하는 용기 등 부처님의 전생이야기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재미있게 각색하였다. 정수일 글, 그림/사륙배판/컬러/168쪽/9,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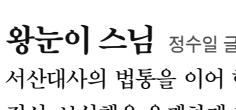
### 만화로 보는 부처님 전생이야기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중에서 어린이들에게 유익하고 교훈적인 내용들을 간추려 재미있게 각색하였다. 정수일 글, 그림/사륙배판/컬러/208쪽/10,000원



### 부처님 지혜를 배우는 불교우화 41가지

재미있는 비유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기 쉽게 전하는 <백유경>을 온 가족이 함께 읽으며 지혜와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정수일 글, 그림/사륙배판/컬러/206쪽/9,000원



### 왕눈이 스님

서산대사의 법통을 이어 한국불교의 법맥을 이은 편양 언기 스님의 생애와 구도정신, 보살행을 유쾌하게 그려냈다. 정수일 글, 그림/사륙배판/컬러/246쪽/7,800원

어린이를 부처님 세계로 이끄는 맑고 유쾌한 불교 동시

### 부처님 나라 개구쟁이들

이봉직 동시·용정운 그림/사륙배판 변형/컬러/112쪽/8,500원



천진한 동심이 바라본 절집안의 풍경, 그리고 기발하고 생기발랄한 상상력

죽비 소리

딱! 소리  
한 번이면 되지요.

선생님처럼  
아빠, 엄마처럼

잘못을 깨우쳐 준다면  
은 세상이 다 알도록  
부끄럼 지지 않아요.

그냥 딱, 한마디면  
내 잘못이 뭔지  
알게 됩니다.

